

저소득층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 행동과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 스트레스: 이혼 가정과 양부모 가정 중심으로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Perceived by Children and Mothers' Family Stress in Low Income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한 준 아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Research Fellow : Jun Ah Ha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differences i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and mothers' family stress by children's sex and parental divorce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with mothers' family stress in low income families.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66 children of 4 to 6 grades and their mothers from low income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wo-way ANOVAs, Pearson's correlations. The result were as follows: Girls perceived more maternal warmth than boys in divorce families, but boys perceived more maternal warmth than girls in intact families. Boys perceived more maternal supervision than girls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Mother of divorced families had more childrearing stress than mothers of intact families. In divorced families, children whose mothers had high levels of childrearing stress perceived less maternal warmth and supervision, and children whose mothers had high levels of work-family conflicts perceived less maternal warmth. In intact families, children whose mothers had high levels of economic stress perceived less maternal supervision.

주제어(Key Words) : 저소득층 아동(low income children), 이혼 가정(divorced families), 양부모 가정(intact families), 어머니 양육 행동(maternal parenting behaviors), 어머니의 가족 스트레스 (mothers' family stress)

I. 서론

최근 아동·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8세 미만의 아동 8명 중 1명이 빈곤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우리 사회의 경제 성장으로 국민 생활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다소 해소되었으나, 계층간 소득의 격차가 커지면서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은 오히려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IMF 이후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상대적 아동 빈곤율'은 연평균 10.6%로(김미숙, 양심영, 2007), 아동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증가는 사회의 양극화 측면 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 및 복지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며, 선행 연구에 의하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김미숙 외, 2007; Crosson-Tower, 2008).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정의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 맞벌이로 인한 심신의 피로, 아동 양육 시간의 부족, 교육비 부족 등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된다고 한다(김미숙 외, 2007; Crosson-Tower, 2008).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관계의 긴장과 갈등을 높이고, 어머니에게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의 어머니는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비일관적이고 비온정적인 양육 행동을 표출하며,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와 관여를 낮추게 된다(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임세희, 2007).

또한, 최근 20년간 우리 사회에서 증가한 가족 해체 현상은 저소득층의 잠재적인 문제들과 복합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저소득층 가정에는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김미숙 외, 2007), 이들 가정은 보통 주양육자 혼자서 아동을 돌보아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이혼은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동의 삶과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혼 가정의 부모는 이혼 전·후의 심각한 부부 갈등, 이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의 해결 과정, 달라진 삶의 방식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효과적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 이혼 가정 아동의 적응을 장기적으로 연구한 Kelly(2000)에 의하면, 이혼 후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취하고 자녀를 통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러한 양육 방식이 아동의 공격성과 문제 행동을 증가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혼 가정의 어머니는 양부모 가정의 어머니에 비해 자녀에게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는 정도가 낮고, 애정표현이 적으며, 비일관적인 훈육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Hetherington, Cox, & Cox, 1982).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이혼 가정의 자녀가 양부모 가정의 자녀보다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덜 온정적이며 지도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연옥, 이민규, 2006). 한편 정현숙(1993)은 이혼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 아동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자녀의 적응을 도와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이 부모의 이혼이라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지지적이고 온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한다면, 이혼이라는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일반적 태도인 양육 행동은 아동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며(Rohner, Khaleque, & Cournoyer, 2005), 어머니 양육 행동은 부모의 이혼과 상관없이 아동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Maccoby & Martin, 1983). 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가족 구조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양부모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수용적이며, 덜 엄격하였으며(Fristod & Karpowitz, 1988), 어머니가 여아보다 남아에게 명령하거나 혼을 내는 등 힘에 의존한 훈육 방식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Kuczynski, 1984).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과 김향은(2002)의 연구에서는 온정·수용 영역, 허용·방임 영역에서는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아에게 여아보다 거부·제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혼 가정의 경우도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연구(Bergstand, 1998)와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이순형, 이옥경, 민미희, 2006)로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내적인 요인을 고려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신숙재, 1997; Abidin, 1992). Abidin(1992)은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으며, 신숙재(1997)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은 물론 양육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가족 구조적 상황은 경제적 상황과 결합하여 이들의 가족 스트레스는 증가 될 수 있다. 이혼 가정의 부모는 일상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와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이혼 이후에는 부부가 함께 공유하던 경제적 책임, 자녀 양육, 가사일 등을 혼자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사회적, 심리적 기능을 손상시키게 되면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하

기 어려워지고, 이와 같은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이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Hetherington, 1989).

양부모 가정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다 민감하고 온정적이며 일관된 양육 행동을 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따라서 저소득층 양부모 가정 어머니는 보다 권위적인 양육 행동을 하여 일방적인 지시나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거나 신체적 처벌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재연, 백정재, 1997).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저소득층 이혼 가정 어머니의 경우 거부적 양육 행동과 처벌적인 훈육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Zelkowitz, 1982).

어머니의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의 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에서 어머니가 한부모가 된 후 겪게 되는 역할 수행, 심리·정서, 경제적, 대인 관계, 자녀 양육 등의 어려움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공선영, 2000; 성경현, 1998; 한경혜, 1993). 우리나라에서는 양부모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 양육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졌으나(김명희, 1999; 신숙재, 1997), 학령기 자녀로 둔 이혼 가정과 양부모 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 스트레스와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과 어머니의 이혼 여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이혼 가정과 양부모 가정 각각의 가족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후 다양한 가족 구조를 가진 저소득층 가정의 복지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상에

서 제기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성,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라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이혼 가정과 양부모 가정의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 행동과 어머니의 가족 스트레스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4~6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총 166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령의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학령기 후기 아동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며, 자신의 생각을 질문지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해 서울 시내에 있는 3개의 사회복지기관과 27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을 편의 표집 하였다. 연구 협조에 동의한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과 부모의 거주지는 주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소재하였다.

본 연구 대상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혼인 상태에 따라서 보면 이혼 가정 아동은 83명, 양부모 가정 아동은 83명이었으며, 대상 아동의 성을 보면 남아 83명(50%), 여아 83명(50%)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학년별로는 4학년이 63명(38.0%), 5학년이 55명(33.1%), 6학년이 48명(28.9%)으로 분포되었다.

<표 1> 부모의 혼인 상태에 따른 연구 대상 아동의 특성

변인	범주	이혼 가정 아동 (n = 83)	양부모 가정 아동 (n = 83)	전체 (N = 166)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아	39(47.0)	44(53.0)	83(50.0)
	여아	44(53.0)	39(47.0)	83(50.0)
학년	4학년	31(37.3)	32(38.6)	63(38.0)
	5학년	24(28.9)	31(37.3)	55(33.1)
	6학년	28(33.7)	20(24.1)	48(28.9)
출생순위	첫째	41(49.4)	35(42.2)	76(45.8)
	둘째	35(42.2)	36(43.3)	71(42.8)
	셋째	5(6.0)	12(14.5)	17(10.2)
	넷째	2(2.4)	0(0)	2(1.2)
형제 수	외동	22(26.5)	11(13.3)	33(19.9)
	한 명	46(55.4)	46(55.4)	92(55.4)
	두 명	13(15.7)	23(27.7)	36(21.7)
	세 명	2(2.4)	2(2.4)	4(2.4)
	네 명	0(0)	1(1.2)	1(.6)

〈표 2〉 연구 대상 아동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인	범주	이혼 가정 모	양부모 가정 모	전체
		(n = 83)	(n = 83)	(N = 166)
		빈도(%)	빈도(%)	빈도(%)
연령	30대	39(47.0)	49(59.0)	88(53.0)
	40대	40(48.2)	32(38.6)	72(43.4)
	50대	4(4.8)	2(2.4)	6(3.6)
학력	초졸	5(6.0)	0(0)	5(3.0)
	중졸	19(22.9)	17(20.5)	36(21.7)
	고졸	48(57.8)	56(67.5)	104(62.7)
	전문대졸	6(7.2)	4(4.8)	10(6.0)
	대졸	5(6.0)	6(7.2)	11(6.6)
직업	사무직	2(2.4)	4(4.8)	6(3.6)
	기술·기능직	4(4.8)	4(4.8)	8(4.8)
	자영업	0(0)	4(4.8)	4(2.4)
	판매·서비스직	15(18.1)	8(9.6)	23(13.9)
	생산·단순직	32(38.6)	13(15.7)	45(27.1)
	전업주부	14(16.9)	34(41.0)	48(28.9)
	기타	16(19.3)	16(19.3)	32(19.3)
가계 월수입	100만 원 이하	67(80.7)	59(71.0)	126(75.9)
	100~200만원	16(19.3)	24(29.0)	40(24.1)

아동의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첫째인 아동이 76명(45.8%), 둘째인 아동이 71명(42.8%)으로, 주로 첫째 아동과 둘째 아동이었다. 또한 본인을 제외한 형제자매 수는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아가 33명(19.9%), 한 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이 92명(55.4%)으로 많았고, 두 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은 36명(21.7%), 세 명의 형제자매, 네 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은 각각 4명(2.4%), 1명(0.6%)으로 그 수가 적었다.

연구 대상 어머니의 사회 경제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이혼 가정, 양부모 가정 모두 주로 30대와 40대였으며, 이혼 가정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0.2세, 양부모 가정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9.5세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이혼 가정(57.8%)과 양부모 가정(67.5%)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직업별 특성을 보면, 이혼 가정 어머니의 직업은 생산·단순직(38.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기타 직종(19.3%), 판매·서비스직(18.1%)이 많았다. 양부모 가정 어머니는 전업주부(41.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기타 직종(19.3%), 생산·단순직(15.7%)이 많았다. 가계의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75.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00~200만원대(24.1%)였다. 이러한 소득 상황은 2007년 1/4 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369만원(통계청, 2007)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혼 가정의 특성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어머니가 이혼한 후 시간이 얼마나 경과 했는지를 살펴보면 평균 4년 5개월이 지났고, 경과 기간의 범위는 1년 미만부터 11년까지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후 4~5년이 경

〈표 3〉 이혼 가정의 특성

(N = 83)

변인	내용	빈도(%)
이혼경과기간	1년 미만	6(7.2)
	1-2년 미만	9(10.8)
	2-3년 미만	12(14.5)
	3-4년 미만	10(12.1)
	4-5년 미만	14(16.9)
	5-6년 미만	12(14.5)
	6-7년 미만	8(9.6)
	7-8년 미만	6(7.2)
	8-9년 미만	3(3.6)
	9-10년 미만	2(2.4)
	10-11년 미만	1(1.2)
이혼 당시 취업 여부	유	31(37.3)
	무	52(62.7)
자녀문제에 관해 전배우자와 의논	전혀 하지 않음	59(71.1)
	1년에 1-2번	4(4.8)
	1년에 3-4번	2(2.4)
	1년에 5-6번	1(1.2)
	1달에 1번	8(9.6)
	중요한 일에만 기타	9(10.8) 0(0)
전배우자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	전혀 하지 않음	51(61.4)
	1년에 1-2번	4(4.8)
	1년에 3-4번	6(7.2)
	1년에 5-6번	2(2.4)
	1달에 1-2번	9(10.8)
	일주일에 1번 기타	4(4.8) 7(8.4)
자녀에게 이혼 알림	알림	61(73.5)
	알리지 않음	22(26.5)

과한 아동이 14명(16.9%)으로 가장 많았고, 2~3년과 5~6년이 경과한 아동이 각각 12명(14.5%), 3~4년이 경과한 아동이

10명(12.1%)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이혼 전 취업 상태를 살펴보면, 83명 중 52명이 전업주부였다. 어머니의 이혼 전 취업 상태와 현재 취업 상태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이혼 전에 전업주부였던 52명의 어머니 중 43명이 이혼 후 취업을 하였다.

이혼 이후에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가 자녀 문제에 관해 전배우자와 의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혀 의논하지 않는 어머니는 59명(71.1%)으로 대다수의 어머니가 전배우자와 자녀문제에 관해 의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이혼 이후에 아동이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와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대상 아동 83명 중 51명(61.4%)이 아버지와 전혀 만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 사실을 알렸는지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 83명 중 61명(73.5%)이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다고 응답하여 상당수의 부모가 자녀에게 이혼 사실을 알렸으나, 알리지 않은 부모도 26%에 달하였다.

2. 측정 도구

1) 어머니 양육 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한준아(2008)가 개발한 「부모 양육 행동」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온정'(9문항)과 '관리·감독'(6문항)의 2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온정'은 어머니가 아동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기, 아동에 대한 수용, 필요한 도움 제공하기, 자율성에 대한 격려 등과 같은 애정적이고 따뜻한 행동을 의미하며, '관리·감독'은 어머니가 아동의 일상생활에 일관성 있게 제한을 정해 주고 아동이 예측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나가는 양육 행동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 대하여 아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온정'이 9점~36점, '관리·감독'이 6점~2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온정과 관리·감독이 많다고 아동이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온정'이 .85, '관리·감독'이 .72이었다.

2) 어머니의 가족 스트레스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McCubbin(1981)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 척도를 중심으로 김오남(1998)이 수정한 「가족 스트레스 척도」의 5개 하위 영역 중 '자녀 양육'(6문항), '경제적 문제'(5문항), '일과 가족 갈등'(6문항)의 3개 하위 영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는 각 문항의 스트레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자녀 양육'이 6점~30점, '경제적 문제'는 5점~25점, '일과 가족 갈등'은 6점~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17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83이었으며, 각 하위 차원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자녀 양육이 .73, 경제적 문제가 .78, 일과 가족 갈등이 .71이었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를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아동센터를 편의 표집하여, 전화와 방문을 통해 연구의 안내 및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3개의 사회복지기관과 27개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자가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아동에게 어머니 양육 행동 질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하도록 하였고, 어머니의 가족 스트레스 질문지와 가정환경조사서는 아동을 통해 어머니에게 배부하여 응답한 후 봉투에 봉하여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가져오도록 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374부를 배부하였고, 그 중 226부가 회수되어 60.4%의 회수율을 보였다. 어머니용 질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경우와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부자 가정, 조손 가정은 연구에서 제외하여, 16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각 변인에 대한 기술적 통계를 산출하였으며,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 행동과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 스트레스가 아동의 성,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어머니 양육 행동과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 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먼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 행동의 문항 평균 점수를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혼 가정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온정' 문항 평균은 4점 척도에서 2.31, '관리·감독'은 2.27이었다. 양부모 가정에서는 '온정'은 2.34, '관리·감독'은 2.21이었다.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그렇다(4점)'의 4점 척도 중 2점인 '때때로 그렇다'와 3점인 '자주 그렇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 4〉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른 측정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166)

		이혼가정(n = 83)	양부모가정(n = 83)	전체(N = 166)
		M(SD)	M(SD)	M(SD)
양육행동	온정	2.31(0.63)	2.34(0.64)	2.33(0.63)
	관리·감독	2.27(0.66)	2.21(0.69)	2.24(0.68)
스트레스	자녀 양육	2.90(0.66)	2.67(0.68)	2.79(0.68)
	경제적 문제	3.80(0.89)	3.62(0.73)	3.71(0.77)
	일과 가족 갈등	3.12(0.72)	2.96(0.67)	3.04(0.74)

〈표 5〉 아동의 성과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른 어머니 양육 행동과 가족 스트레스의 평균, 표준편차와 이원변량분석 결과

(N = 166)

변인	이혼 가정			양부모 가정			전체			F값			
	남 (n = 39)	여 (n = 44)	계 (n = 83)	남 (n = 44)	여 (n = 39)	계 (n = 83)	남 (n = 83)	여 (n = 83)	총계 (n = 166)	아동성 (A)	부모이혼여부 (B)	상호작용 (A×B)	
양육행동	온정	20.38 (5.46)	21.14 (5.79)	20.78 (5.61)	22.43 (6.10)	19.59 (4.91)	21.09 (5.72)	21.46 (5.87)	20.40 (5.42)	20.94 (5.66)	1.44	.08	4.24*
	관리 감독	14.10 (3.85)	13.15 (4.09)	13.60 (3.98)	14.00 (3.89)	12.38 (4.32)	13.24 (4.16)	14.04 (3.85)	12.79 (4.19)	13.42 (4.06)	4.14*	.49	.29
가족 스트레스	자녀 양육	17.21 (4.32)	17.57 (4.59)	17.40 (4.44)	16.27 (3.75)	15.74 (5.04)	16.02 (4.38)	16.71 (4.03)	16.71 (4.86)	16.71 (4.45)	.02	4.00*	.42
	경제적 문제	18.97 (4.07)	19.07 (4.01)	19.02 (4.01)	18.02 (3.41)	18.18 (3.91)	18.10 (3.64)	18.47 (3.74)	18.65 (3.97)	18.56 (3.85)	.04	2.36	.01
	일과 가족갈등	19.00 (3.67)	18.48 (4.86)	18.72 (4.32)	18.45 (4.18)	17.02 (3.75)	17.78 (4.02)	18.71 (3.94)	17.80 (4.41)	18.25 (4.19)	2.26	2.37	.49

*p < .05, **p < .01, ***p < .001.

아동이 어머니의 온정과 관리·감독을 보통 수준 정도로 지각하고 있고, 어머니가 관리·감독보다는 온정을 조금 더 많이 보인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자녀 양육'과 관련한 스트레스는 문항 평균으로 이혼 가정 어머니는 2.90, 양부모 가정 어머니는 2.67이었으며,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에서 중 2점인 '비교적 그렇지 않다'와 3점인 '보통이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혼 가정 어머니가 3.80, 양부모 가정 어머니가 3.62이었으며,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에서 중 3점인 '보통이다'와 4점인 '그런 편이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는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과 가족 갈등'에 대한 지각은 이혼 가정 어머니의 문항 평균 점수는 3.12, 양부모 가정 어머니는 2.96으로 나타나, 이혼 가정 어머니의 경우 일과 가족 갈등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양부모 가정 어머니는 일과 가족 갈등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중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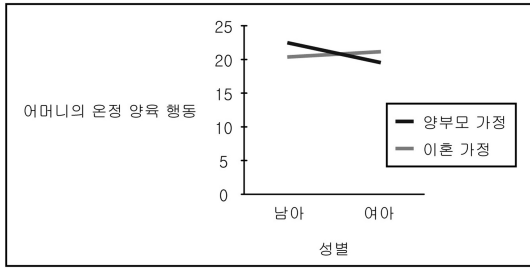
2. 아동의 성과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가족 스트레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 행동과 어머니의 가족 스트레스가 아동의 성과 부모 이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이원변량 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1) 아동의 성과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행동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 행동은 양부모 가정의 남아 집단의 평균이 22.43점으로 가장 높았고 양부모 가정의 여아 집단의 평균이 19.59점으로 가장 낮았다.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관리·감독 양육 행동은 이혼 가정의 남아 집단(M = 14.10)이 가장 높았고 양부모 가정의 여아 집단(M = 12.38)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이원변량 분석 결과,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 행동에서는 아동의 성과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부모 가정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 행동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인 반면, 이혼 가정은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행동을



〈그림 1〉 어머니의 온정 양육 행동 점수에서 아동의 성과 부모의 이혼 여부간의 상호작용 효과

더 많이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관리·감독 양육 행동에서는 아동의 성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어머니가 관리·감독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2) 아동의 성과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가족 스트레스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 스트레스는 자녀 양육 관련 스트레스의 경우, 이혼 가정의 여아 집단(M = 17.57)이 가장 높았고 양부모 가정의 여아 집단(M = 15.74)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스트레스는 이혼 가정의 여아 집단(M = 19.07)이 가장 높았고 양부모 가정의 남아 집단(M = 18.02)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일과 가족 갈등 스트레스는 이혼 가정의 남아 집단(M = 19.00)이 가장 높았고 양부모 가정의 여아 집단(M = 17.02)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이월변량 분석 결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성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성,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 '일 가족 갈등 스트레스'는 아동의 성,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이혼 가정 어머니는 양부모 가정 어머니보다 자녀 양육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 행동과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 스트레스의 관계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 행동과 어머니가 지각한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성과 어머니 양육 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 성은 통제하

〈표 6〉 이혼 가정 집단의 측정 변인들 간 적률상관계수

(N = 83)

	(1)	(2)	(3)	(4)	(5)
(1) 온정	1.00				
(2) 관리·감독	.45***	1.00			
(3) 자녀 양육	-.29**	-.23*	1.00		
(4) 경제적 문제	-.13	-.04	.41***	1.00	
(5) 일과 가족 갈등	-.28**	-.02	.40***	.52***	1.00

*p < .05, **p < .01, ***p < .001.

〈표 7〉 양부모 가정 집단의 측정 변인들 간 적률상관계수

(N = 83)

	(1)	(2)	(3)	(4)	(5)
(1) 온정	1.00				
(2) 관리·감독	.34**	1.00			
(3) 자녀 양육	-.06	-.18	1.00		
(4) 경제적 문제	-.02	-.23*	.25*	1.00	
(5) 일과 가족 갈등	-.07	-.12	.40***	.19	1.00

*p < .05, **p < .01, ***p < .001.

였으며, 이혼 가정에서 이혼 후 경과 기간과 어머니 양육 행동,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어 이혼 경과 기간은 통제하지 않았다.

1) 이혼 가정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 행동과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 스트레스의 관계

이혼 가정 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가족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별로 상관 관계를 살펴 보면 〈표 6〉과 같다. 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온정(r = -.29, p < .01)과 부적 상관관, 관리·감독(r = -.23, p < .05)과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일과 가족 갈등 스트레스의 경우, 온정(r = -.28, p < .05)과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이는 이혼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아동이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 행동과 관리·감독 양육 행동을 적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어머니가 일과 가족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아동이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 행동을 적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양부모 가정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 행동과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 스트레스의 관계

양부모 가정 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가족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별로 상관 관계를 살펴 보면 〈표 7〉과 같다.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관리·감독(r = -.23, p < .05)이 부적 상관관을 보였다. 이는 양부모 가정 아동의 경우 어머니가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관리·감독 양육 행동이 적음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저소득층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과 부모의 이혼 여부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 행동과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혼 가정과 양부모 가정의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족 스트레스와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 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 문제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부모 가정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 행동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인 반면, 이혼 가정은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행동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부모 가정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행동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 성차를 보이지 않은 결과(박영애 외, 2002), 어머니가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수용적인 연구 결과(Fristod & Karpowitz, 1988)와 비일관적인 결과이다. 한편, 이혼 가정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행동을 더 많이 지각하였는데, 이는 이혼 가정의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 남자와 양육을 담당한 어머니 사이에서 강압적인 양육 행동이 관찰된 연구(Bergstand, 1998)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이순형 외(2006)의 연구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살펴봤는데,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혼 가정의 어머니는 동성인 자녀에게 온정적인 양육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가 양육하는 남자와 어머니가 양육하는 여아의 경우 사회적 능력, 사회 성숙도, 자존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문제 행동을 덜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Camara & Resnick, 1987; Peterson & Zill, 1986; Santrock & Warshak, 1979),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성이 아동의 성과 일치할 때, 이혼 가정 아동의 적응이 용이하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가정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적응에 어려움이 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어머니는 여아를 양육하기에 더 수월함을 느낄 가능성이 있으며, 남아보다 여아에게 보다 더 온정적이며 수용적일 가능성이 있으리라 추론된다. 그러나 부모의 성, 자녀의 성이 동성일 때 자녀의 적응이 용이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나(Camara & Resnick, 1987; Peterson & Zill, 1986; Santrock & Warshak, 1979), 연구 결과의 일관성이 적고(한준아, 2008), 이혼 후 아버지가 아동을 양육하는 이혼 가정의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연구 결과의 축적이

요구된다.

그리고 양부모, 이혼 가정 모두 남아가 여아보다 어머니가 관리·감독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여아보다 남아의 활동 수준이 높고 불복종 태도로 인해 더 많은 생활에 대한 관여와 제한을 하게 된다고 여겨진다. 또한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어머니가 아들은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혼 가정에서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지도는 아동의 적응과 정적 관계를 가졌으며, 아동들은 부모가 취침시간, TV 시청시간, 숙제를 점검하는 등 적절한 감독을 할 때 적응을 잘 하였다(Guidubaldi, Perry, & Nastasi, 1987). 또한 이혼 가정에서는 감독 특히 부모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여는 아동의 초기 청소년 시기의 비행과 부적 상관에 있었으며, 아동의 우울,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므로(Rodgers & Rose, 2002),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적절한 수준의 관리·감독의 행동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혼 가정과 양부모 가정의 비교 연구는 단순히 이혼 가정의 어머니가 양부모 가정의 어머니보다 자녀를 적절히 돌보지 않는 부모라는 인식이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 가족 구조 및 아동의 성에 따라서 어머니 양육 행동에 대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어머니 양육 행동에 대한 지침 및 부모 역할 교육은 가족 구조 및 아동의 성에 따라 보다 구체화되고, 어머니 양육 행동에 대한 접근이 좀 더 다양해 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혼 가정 어머니는 양부모 가정 어머니보다 자녀 양육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 가정 어머니는 양부모 가정 어머니보다 일상 생활에서 자녀와의 대화 감소, 자녀와의 의견 충돌, 자녀의 교육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한 부담과 긴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가정의 어머니는 자녀를 혼자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자녀가 기대에 따르지 않을 때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자녀 양육을 지원해 줄 배우자가 없고, 자녀 문제에 대해 상의할 수 없고 자녀에 대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감당해야 하므로 역할 과중을 느낄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해, 부부 관계는 해체되어도 부모 역할은 남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양육하는 이혼 가정 어머니 중 59명(71.1%)이 자녀 문제에 관해 전배우자와 전혀 의논하지 않았다. 그만큼 어머니의 양육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며, 이혼한 부모는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자녀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즉 자녀와 비양육부모와는 여전히 부모-자녀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비양육 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부담이 경감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지지 체계의 활용을 통해 이혼 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혼 가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혼 가정의 가족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전문화되어야 한다.

둘째, 이혼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아동이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 행동과 관리·감독 양육 행동을 적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어머니가 일과 가족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아동이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 행동을 적게 지각하고 있었다. 양부모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아동이 어머니의 관리·감독 양육행동을 적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혼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배우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남편이 부모로서 어머니와 대화하고 지원해주는 기능이 실행되지 못하므로 양육 스트레스가 많아지며, 이에 따라 아동에게 온정적인 양육 행동이나 아동의 생활을 관리하며 일관성 있는 양육 행동을 적게 하게 된다고 여겨진다.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아동을 양육할 때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혼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시사된다. 또한 자녀 양육에 관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일상 생활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소득층 이혼 가정 아동이 비행이나 이웃 우범 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생활 관리와 관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저녁 식사 제공 등 기본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혼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정과 일의 역할 부담, 해야 할 일에 대한 절대적 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자녀에게 온정적인 양육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의 이혼 가정에서는 이혼 전 전업 주부였던 어머니 중 79.6%가 이혼 후 새롭게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후 새롭게 취업을 한 대부분의 어머니는 저임금 및 미숙련된 일에 종사하였고, 본 연구에서 이혼 가정 어머니의 직업이 대부분 생산 단순직, 판매 서비스 등으로 노동시간이나 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은 편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가정 어머니는 여러 역할을 수행하기에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을 느낄 수 있으며, 직장 생활과 더불어 가정에서의 역할의 병행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

해 육체적, 심리적으로 지친 어머니는 자녀에게 다정하고 지지적으로 대할 여력이 부족하여 온정적인 양육 행동을 덜 하게 된다고 여겨진다. 어머니의 적절한 온정과 통제는 아동이 자신에 대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데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절한 양육을 취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 확충이 요구되며, 근본적으로는 부모의 생활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직업 환경 및 경제적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의 어머니는 주로 생산 단순직, 판매 서비스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저소득층 이혼 가정 어머니가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기능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직업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양부모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동의 교육비, 저소득으로 인한 가정 생활 운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아동에 대한 관리·감독 행동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양부모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경제적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아동의 일상 생활에 제한을 정해 주고 아동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 행동을 적게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 양부모 가정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다른 스트레스 점수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고, 양부모 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아동을 양육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부모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부모 역할에 할애하는 시간이나 노력이 제한된다는 결과(Zelkowitz, 1982)와 일관적인 결과이다. 그러므로 저소득층 어머니가 아동을 적절히 양육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이후의 경제적 기회가 제한되므로 경제적 어려움, 가난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동의 교육을 통한 것이라 여겨진다. 지역아동센터의 활용, 방과 후 프로그램, 공교육인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저소득층 아동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이혼 가정과 달리 양부모 가정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에서만 양육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부모 가정에서 부부 관계 및 아버지 양육 참여도를 조사하지 않았으나, 양부모 가정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관련된 문제나 스트레스를 지원해 줄 배우자라는 사회적 지지 지원 등 자녀 양육에 관련된 스트레스와 어머니 양육 행동과

의 관계를 완충해 줄 보호적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양부모 가정 어머니 중 42%가 전업주부였으며, 양부모 가정에서 아버지의 취업 여부를 살펴보기 않아서 제한적 의미를 가지나, 이들의 일과 가족간의 역할 부담에 대한 스트레스는 취업한 어머니에 비해 적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취업 여부에 따라 양부모 가정 어머니의 일과 가족 갈등 스트레스 점수를 살펴보니, 전업 주부는 16.97점, 취업한 어머니는 18.34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이혼 여부와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온정적 양육 행동', '관리·감독 양육 행동', '자녀 양육 스트레스', '경제적 문제 스트레스', '일과 가족 갈등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온정적 양육 행동', '관리·감독 양육 행동', '자녀 양육 스트레스', '경제적 문제 스트레스', '일과 가족 갈등 스트레스'는 부모의 이혼 여부,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경계선 수준에서 취업한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어머니보다 일과 가족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게 나왔으므로($F = 3.25, p < .10$),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취업 여부, 일 만족도 등 부모의 일에 관련된 변인을 포함하여 양육 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을 서울시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기관에 다니는 4~6학년 저소득층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편의 표집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이 따른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의 대상이 포함되고, 모자 가정과 양부모 가정 외에 부자 가정, 조손 가정, 재혼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가족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이 변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망, 어머니의 심리적 적응 등을 변인에 포함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저소득층 양부모 가정과 이혼 가정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가족 스트레스의 관계를 밝혀서 저소득층 가족 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자녀 양육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공선영(2000). 모자 가족의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희(1999).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망과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숙, 양심영(2007). 위기의 한국아동실태와 정책적 대응 방안. **보건복지포럼**, 6, 5-20.
- 김미숙, 조애정, 배화옥, 최현수, 홍미, 김효진(2007). **한국의 아동 빈곤 실태와 빈곤 아동 지원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오남(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애, 최영희, 박인진, 김향은(200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4), 43-60.
- 박현선, 정익중, 구인회(2006). 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58(2), 303-330.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성정현(1998). 이혼여성들이 경험하는 사회 심리적 문제와 대처전략. **사회복지연구**, 11, 53-78.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순형, 이옥경, 민미희(2006).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 및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지각이 아동의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81-192.
- 이재연, 백정재(1997).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생활과학연구지**, 12, 71-93.
- 임세희(2007). 장기빈곤이 아동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1, 55-78.
- 정연옥, 이민규(2006). 이혼가정 자녀의 스트레스 완충의 조절효과로써 부모양육태도와 유기공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689-708.
- 정현숙(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아동학회지**, 14(1), 59-75.
- 통계청(2007). **인구통계연보**. 대전: 통계청.
- 한경혜(1993). 한국 이혼 부부의 적응과 관련 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이혼과 가족문제** (pp. 79-104). 서울: 도서출판 하우.
- 한준아(2008). 이혼 가정 아동의 자아지각 및 문제 행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 407-412.
- Bergstand, C. R.(1998).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In J. D. Noshpitz et al., (Eds.), *Handbook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vol.7, pp. 63-74). Hoboken, NJ: Wiley.
- Camara, K. A., & Resnick, G.(1987). Interparental conflict and cooperation: Factors moderating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In E. M. Hetherington & J. D. Arasteh (Eds.), *Divorced, single-parent, and stepparent families*(pp. 169-19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rosson-Tower, C.(2008). Exploring child welfare: A practice perspective.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Fristod, M. A., & Karpowitz, D. H.(1988). Norms for the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modified forms. *Psychological Report, 62*, 665-676.
- Guidubaldi, J., Perry, J. D., & Nastasi, B. K.(1987). Growing up in a divorced family: Initial and long-term perspective on children's adjustment. In S. Oskamp (Ed.), *Annual Review of Applied Social Psychology*(vol.7, pp. 202-237). Beverly Hills, CA: Sage.
- Hetherington, E. M.(1989).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s: Winners, losers, and survivors. *Child Development, 60*, 1-14.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1982). Effects of divorce on parents and children. In M. Lamb (Ed.), *Nontraditional families* (pp. 233-28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elly, J. B.(2000). Children's adjustment in conflicted marriage and divorce: A decade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963-973.
- Kuczynski, L.(1984). Socialization goals and mother-child interaction strategies for long-term and short-term compli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061-1073.
- Maccoby, E. E., &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 P. H. Mussen (Genera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th ed.). Hoboken, NJ: Wiley.
- McCubbin, H. L.(1981).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FILE)*. Unpublished manuscript. St. Paul, MN: University of Minnesota.
- Peterson, J. L., & Zill, N.(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Rodgers, K. B., & Rose, H. A.(2002). Risk and resiliency factors among adolescents who experience marital trans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1024-1037.
- Rohner, R. P., Khaleque, A., & Cournoyer, D.(2005). Introduction to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methods, evidence, and implication. In R. P. Rohner & A. Khaleque(4th Eds.), *Handbook of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pp. 1-35). Storrs, CT: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 Santrok, J. W., & Warshak, R. A.(1979). Father custody and social development in boys and girls. *Journal of Social Issues, 35*, 112-125.
- Zelkowitz, P.(1982). Parenting philosophies and practices. In. D. Belle(Ed.), *Lives in stress: woman and depression*(pp. 154-162). Beverly Hills, CA: Sage.

접 수 일 : 2010년 6월 30일

심사시작일 : 2010년 7월 6일

게재확정일 : 2010년 8월 17일